전북서 펼쳐지는 체류형 공립미술관 투어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 한국관광공사, 도외 방문객 1박 2일 일정 전북 문화 · 예술 세계 탐방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가기 좋은 가을 캠페인 기간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체류형 공립미술관 여행을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며, 도외 방문객들에게 전북의 풍부한 예술과 명산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유료 여행프로그램은 전북공립미술관 학예연구직 연석회의에서 공동기획하고, 한국관광공사전북지사와의 협력으로 개발한 상품으로, 전북의 문화와 예술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첫날 정읍시립미술관 특별전 관람을 시작으로, 유명 쉐프 이원일의 별미를 맛보고 내장산의 가을 정취를 만끽한다. 이어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이건희컬렉션 특별 도슨트 및 국악 공연을 관람하며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밤을 보낸다.

둘째 날에는 모악산 등반 후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과 혼불문학관, 청호미술관 카페를 차례로 방문해 전북의 문학과 예술 세계를 탐방한다.

앞서 도립미술관은 지난 9월 전북의 공립미술관을 방문하는 체류형 관람프로그램인 〈브리콜라주:그러모은 미술관(전북미술주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100여 명의 도외 관람객을 맞이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가기 좋은 가을 캠페인 기간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체류형 공립미술관 여행을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이번 여행상품은 11월 16일부터 4회차에 걸쳐 운영, 매회 30여 명의 도외 관람객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마지막 5회차는 오는 13~14일 진행된다.

여행에 참여한 수원시민은 "이애선 관장의 열정적인 설명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수원시립미술관에서 본 나혜석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부심을 얻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서울에서 온 참가자는 "이건희컬렉션의 전국 모든 전시를 다 보았을 정도로 미술여행에 관심이 많았다", "이번 전시는 기증의 의미를 살린 최고의 전시였다"고 말했다.

이애선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 공립미술관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예술과 여행이 결합된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행상품의 예약 및 자세한 일정은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가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제33회 진안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2일 진안문화의 집 마이홀서 개최

진안군립합창단(단장 김병하 부군수, 지휘 박영근)이 오는 12일 오후 7시 진안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제33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군립합창단의 '선구자', '나하나 꽃피어' 등 다양한 명곡 합창과 함께 특별출연팀인 신상근(테너), 예음컴퍼니(국악팀), 첼로(소중연)의 무대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이 될 예정이다.

진안군립합창단은 1996년 창단돼 매년 정기연주회 및 다양한 행사에서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며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관람객과 함께 교감하고, 합창의 매력을 전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연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펼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9일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가 주관하고 재단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이북5도전북연합회가 협력해 도내 새터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활동으로 진행됐다.

작년에 이어 추진된 이날 행사는 1세대당 10kg 상당의 김장김치를 새터민 50가구와 지역 저소득층 20가구에 지원했다.

특히 이번 김장나눔 활동에는 재단 임직원 8명이 참여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김장나눔 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의 연대와 상호 돌봄 정신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새터민과 저소득층 가정에 김장김치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희망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는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국립 예술아카데미 음악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술연구 상호 교류 · 협력 '맞손'

전북대 예술문화연구소-불가리아 플로브디프 국립 예술아카데미,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소장 이미배)는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국립 예술아카데미(총장 잔 뻬흘리바노프 Rector Assoc. Prof. Zhan Pehlivanov, Ph.D.) 음악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간 창작음악에 나타나는 전통성과 현대성을 특화한 연구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학문적 ·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정보 및 자료 공유, 연구 인원 교류, 연구조사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협약의 일환으로 전북대 음악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가리아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에 대한 특강이 열릴 예정이다.

이미배 소장은 "이번 협약이 한국과 불가리아 음악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리길 바란다"며 "창작음악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데 큰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1회 순창어린이청소년 영화제 성황리 개최

제1회 순창어린이청소년 영화제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순창 작은영화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우리영화만들자사회적협동조합(김영현 대표, 여균동 감독)이 주관한 이번 영화제는 총 4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초등학교(유등 · 풍산 · 쌍치 · 동계 · 적성) 어린이와 청소년이 영화를 직접 제작하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한 다양한 작품들로 채워졌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 영화들이 스크린에 올랐다. 이 작품들은 순창의 자연과 일상을 배경으로 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영화제는 순창군의 문화적 잠재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며, 단순한 문화 경험을 넘어 영상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의 기회까지 제공하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